

조선시대 말기 전환국(典圖局)의 공간적 변천과 근대 화폐의 발행: 실물 화폐 분석을 중심으로

이의한*

Spatial Transformation of Mint and the Issuance of Modern Currency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Real Currency Analysis

Euihan Lee*

요약 : 전근대적인 화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인식한 조선은 1883년 7월 근대적 조폐기관인 전환국을 창덕궁 부근에 설치하였다. 1884년 2월 전환국 총판에 임명된 독일인 뮐렌도르프는 1885년 11월 선행청 창고 자리에 새로운 경성전환국 건물을 짓고, 화폐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경성전환국에서 제조한 화폐는 발행량이 매우 적었고,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못하였다. 1890년대 들어 전환국을 장악한 일본인 마쓰다 노부유키는 전환국의 인천 이전을 추진하였다. 인천전환국 신축공사는 1892년 5월에 시작되었고, 동년 11월 건축 및 기계 설비를 설치하여 12월에 시운전을 하였다. 인천전환국에서는 각종 화폐를 계속 발행하였다. 조선은 1893년 3월 마쓰다로부터 전환국의 운영권을 되찾아왔으나 재정난과 기술 및 운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화폐 제조가 중단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1898년 10월 조선은 고종의 명에 따라 당시 군자감 창고 자리에서 용산전환국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고, 1900년 5월 건물이 완공되었다. 그 후 1900년 8월 인천전환국의 조폐시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1900년 9월부터 화폐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1904년 10월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에 취임한 메카타 다네타로는 동년 11월 전환국을 폐지하였고, 조폐업무를 일본 오사카조폐국에 위탁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국가의 화폐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일본의 화폐제도에 철저히 종속되었다. 주요어 : 근대적 조폐기관, 전환국, 경성전환국, 인천전환국, 용산전환국

Abstract : Recognizing the need to fundamentally reform its pre-modern monetary system, Joseon established the Mint, a modern monetary institution, near Changdeokgung Palace in July 1883. German P. G. von Mollendorff, appointed as the general manager of the Mint in February 1884, oversaw the construction of a new Gyeongseong Mint building at the site of the Seonhyecheong warehouse and issued currency in November 1885. However, the Gyeongseong Mint produced a minimal amount of currency, which was hardly circulated in the market. In the 1890s, Matsuda Nobuyuki, a Japanese who took control of the Mint, pushed for relocation of the Mint to Incheon. Construction of the new Incheon Mint began in May 1892, with installation of construction and mechanical facilities completed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A test operation was carried out in December 1892, and the Incheon Mint subsequently issued various types of currency. Joseon regained the right to operate the Mint from Matsuda in March 1893, but frequent suspensions in money production occurred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a lack of technological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In October 1898, under the orders of Emperor Gojong, Joseon began construction of the Yongsan Mint at the site of the Gunjagam warehouse. The building was completed in May 1900, and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e minting facility from the Incheon Mint was relocated to Yongsan. Money production resumed in September 1900. In October 1904, Mechata Tanetaro, who took office as a financial advisor to the Korean Empire, abolished the Mint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and entrusted the minting work to the Osaka Mint in Japan. Consequently, the Korean Empire completely lost its monetary sovereignty and became entirely subjugated to Japan's monetary system.

Key Words : Modern monetary institution, Mint, Gyeongseong Mint, Incheon Mint, Yongsan Mint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uihan@kangwon.ac.kr)

I. 서론

화폐는 상품의 교환 가치를 나타냄으로써 상품이 유통될 때 매개물로 쓰이며, 동시에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상업이 발전하고 상품 거래가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화폐는 점차 조선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들 화폐 중 상평통보는 1678년(숙종 4년)부터 주조·유통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유통된 조선시대의 대표적 화폐이다. 동(銅)으로 주조된 상평통보는 유통 가치를 항상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영과 관청에서 주조하였기 때문에 형태가 제각각이었고 순도와 중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상평통보는 영·정조 이래로 다량 주조되었고, 사주전(私鑄錢)도 범람하여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그 결과 19세기에 접어들어 상평통보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상평통보가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화폐를 납세의 수단으로 허용하였기 때문이다(박준채, 1980).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개항 이후 다량의 외국 화폐가 들어오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조선은 1876년(고종 13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하고, 외국과의 통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각국과의 통상 규모가 확대되면서 조선에서는 다양한 외국 화폐가 통용되었다. 이때 조선에서 유통된 외국 화폐로는 일본 은화, 중국 마제은(馬蹄銀), 멕시코 은화, 러시아 루블 은화 등이 있다. 일본의 본위화(本位貨)인 1원 은화는 조일수호조규 이후 대량으로 유입되어 개항지를 중심으로 유통되었다. 중국 화폐인 마제은은 말굽 모양의 화폐로 청일전쟁 이후 중국 상인에 의해 대량 유입되어 국경 지역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16세기 이후 국제통화의 기능을 수행한 멕시코 은화는 1888년(고종 25년) 이전까지 가장 많이 유통되었고, 러시아와의 교역 등을 통해 유입된 루블 은화는 경흥(慶興)과 두만강 상류 지역에서 사용되었다(한국 조폐공사, 1993). 다양한 외국 화폐가 유입·유통됨으로써 조선의 화폐 경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외국과의 통상에 있어 화폐 사용의 불편이 커지면서 금·은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조선은 1882년(고종 19년) 3종의 대동전(大東錢)을 발행하였다. 대동전은 조선의 전통적 화폐인 엽전과 달리 구멍을 뚫지 않은 주화로 조선 최초의 귀금속 화폐였다. 대동전은 주물로 만들어

졌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전통 화폐(주물 화폐)에서 근대 화폐(압인 화폐)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의 화폐로 볼 수 있다.

광복 이후 소수의 역사학자와 경제사학자들은 조선시대 말기의 화폐제도 변화와 이들 제도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으며 나름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이중 근대적 조폐기관인 전환국과 관련된 연구로는 원유한(1968), 박준채(1980), 조영준(2014)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원유한(1968)은 조선시대 말기의 상설 조폐기관인 전환국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조선이 1883년(고종 20년) 전환국을 설치한 동기는 개항 이후 급증하는 재정 수요 충당과 조폐사업의 중앙 관리 등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근대 화폐를 주조·유통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이와 같은 동기로 1883년 경성에 설치된 전환국은 1892년(고종 29년)에 인천으로, 1900년(광무 4년)에는 인천에서 용산으로 이전하였다. 전환국의 이전은 일본, 러시아 등 외국 세력의 부침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셋째, 경성전환국에서 근대 화폐 주조사업이 실패한 4년 후인 1892년부터 인천전환국에서 5종의 근대 화폐를 주조하기 시작하였다. 근대 화폐는 전환국이 인천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후에도 계속 주조되었는데 특히 백동화는 전체 화폐 주조액의 약 88%를 차지하였다. 넷째, 백동화의 남발과 범람으로 국내 화폐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였고, 이에 가치가 안정적인 일본 화폐가 국내로 유입하게 되면서 화폐제도가 문란해졌다. 다섯째, 화폐제도의 문란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자 조선은 백동화의 주조 정지를 전제로 한 화폐제도의 정리를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04년(광무 8년)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일본은 화폐제도 정리에 착수하였고, 가장 먼저 백동화 남발과 범람의 본산인 전환국을 폐지하였다. 전환국이 폐지된 후 대한제국의 화폐는 일본 오사카조폐국에서 주조되었다.

박준채(1980)는 일본이 조선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편입하면서 자국의 화폐제도를 조선에 이식(移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행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은 서구적인 근대 화폐의 발행을 시도한 전환국을 전격적으로 폐지하였고, 강제적으로 그들의 화폐제도를 조선에 이식시켰다. 박준채는 전환국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조선시대 말의 화

폐 상황, 전환국의 설립 의의, 화폐개혁, 전환국의 폐지와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일본이 전환국을 폐지하고 그들의 화폐제도를 조선에 이식시킨 것은 일제하의 식민지 경제구조를 자국 본위로 변형하여 식민지 수탈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조영준(2014)은 설립 초기 전환국의 운영 실태에 대해 입체적으로 접근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전환국의 조직과 운영은 당오전 주조와 관련된 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대 화폐의 주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전환국 신축 후 기계 설비가 도입되었으나 근대 화폐의 주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계 설비를 갖춘 조폐장은 근대 화폐의 일시적인 시험 주조에만 잠시 활용되었을 뿐 개점휴업 상태였다. 조영준은 전환국의 주된 업무가 기계 설비의 구매 대금을 상환하거나 왕실 의례에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등 기관의 본질적인 설립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주장하였다.

한편 도면회(1989)는 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부터 화폐정리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1905년(광무 9년)까지 약 20년 간의 화폐제도와 그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주요 내용은 갑오개혁에 의한 화폐 유통 양상의 변화, 백동화의 남발과 화폐제도의 위기, 화폐제도의 문란이 경제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 있다.

또한 오두환(1991)은 한국의 근대화폐사를, 원유한(2006)은 조선 후기의 화폐사를 시계열적(時系列的)으로 분석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 한국 조폐공사 등에서 화폐 및 화폐사와 관련된 각종 서적(1993, 2006, 2015)과 보고서(2006, 2019)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였다.

그러나 역사학자와 경제사학자들은 실물 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도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사료 중심의 연구에서 여러 오류가 발견되면서 한계를 노출하였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자는 근대적 조폐 기관인 전환국이 설립된 1883년부터 전환국이 폐지된 1904년까지 발행된 근대 화폐를 전환국의 공간적 변천에 따라 살펴보고, 이들 실물 화폐의 다양한 특징과 차이를 문양, 제원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근대 화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학계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II. 전환국 설립 이전에 발행된 화폐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폐기관인 전환국이 설립될 무렵에는 다양한 화폐가 발행·유통되고 있었다. 이 당시에 발행·유통되었던 조선의 대표적인 화폐는 다음과 같다.

1. 대동전(大東錢)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동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귀금속 화폐이다. 은으로 주조되어 대동은전(大東銀錢)이라고도 불리는 대동전은 1882년 10월 대동일전, 대동이전, 대동삼전 등 총 3종이 발행되었다. 대동전 뒷면 중앙에는 작은 원이 있으며, 그 안에는 호조(戶曹)에서 만들었다는 표시로 ‘호(戶)’자가 새겨져 있다. ‘호’자 주변은 칠보로 장식되어 있는데 칠보의 색상에 따라 크게 흑색 칠보, 청색 칠보, 녹색 칠보 등으로 구분된다. 대동전은 엽전과 달리 구멍이 없는 서양식 화폐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화폐 조례와 같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주조되었다. 즉, 대동전은 전근대적 칭량은화(稱量銀貨)가 근대적 금·은본위제 하의 은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조된 과도기적 형태의 화폐라고 할 수 있다(원유한, 2006).

대동전은 발행 즉시 부자들의 손에 들어가 축재의 수단으로 저장되거나 해외로 유출되어 시장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또한 대동전의 원료인 마제는(말굽 모양의 은괴)의 가격이 올라 화폐 주조 원가가 상승한 데다가 마제의 구입도 여의치 않아 대동전의 주조는 1883년 6월 정지되었다(유자후, 1940).

2. 당오전(當五錢)

당오전은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의 주청에 따라 재정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금위영(禁衛營)과 만리창(萬里倉) 등의 주전소(鑄錢所)에서 발행한 화폐이다(<http://www.sillok.history.go.kr>). 1883년 2월 발행된 당오전은 1개의 가치가 상평통보의 5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런 명칭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당오전은 소제의 가치가 상평통보의 2배 정도에 지나지 않아 실제 가치의 약 2.5배나 되는 명목 가치를 강제로 부여하여 유통시켰던 화폐이다. 이에 따라 당오전이 발행되면서 악화(惡貨)인 당오전은 양화(良貨)인 상평통보를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한국은행, 2015).

당오전은 금위영과 만리창 등의 주전소에서 발행하였으나 1883년 전환국이 설립된 이후에는 주로 전환국에서 발행하였다. 그 후 특허료를 지불하는 민간인에게도 당오전 발행 사업이 허가되었고, 초기부터 과잉 공급되었던 당오전은 사주전이 발행되면서 더욱 증가하여 주화의 품질이 저하하는 동시에 물가 폭등을 야기하였다(오두환, 1991). 당오전의 가치가 폭락하자 조선은 1889년(고종 26년) 3월 당오전의 주조를 중지하였다. 당오전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당오전은 상거래에서 상평통보의 5배 가치가 아니라 2~3배 가치로 유통되었다. 그 결과 1894년까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당오전이 유통되지 못하였고, 이들 지역은 상평통보 유통권으로 남게 되었다. 즉, 화폐 유통권이 당오전 유통권과 상평통보 유통권으로 양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한국은행, 2006).

3. 평양전(平壤錢)

조선은 1890년(고종 27년) 12월 평양에 전환국 분소(分所)를 설치하고, 평안도 관찰사의 전관(專管) 하에 당오전을 주조하게 하였다(<http://www.sjw.history.go.kr>). 당시 평안도 관찰사 민병석(閔丙奭)은 품질이 떨어지고 크기가 작은 당오전을 다량 주조함으로써 백성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이는 비과학적이고 기계화되지 못한 방법으로 당오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병석은 1892년 평양전이라고 불리는 악화 상평통보를 주조하였다. 이는 소량의 동에 아연, 주석, 철 등을 혼합하여 주조한 후, 표면에 동색(銅色)이 나도록 도금한 저질 악화로 소재 가치가 기존 상평통보의 1/3에 지나지 않았다(원유한, 2006).

평양전의 남발로 인해 화폐 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물가가 치솟게 되면서 화폐 경제는 큰 혼란에 빠져들었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결국 1894년 7월 평양주전소가 폐쇄되었고, 평양전의 주조도 중지되었다(오두환, 1991).

III. 전환국의 설치와 경성전환국(京城典圜局)에서 발행한 근대 화폐

폐쇄 사회였던 조선은 개항을 계기로 급격히 개방되면서 선진 각국의 근대 화폐를 접하게 된다. 조선은 가치가

안정적이고 운송이 편리한 근대 화폐의 우수성을 실감하는 한편 가치가 불안정하고 운송이 불편한 전통 화폐 즉, 엽전의 약점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조선은 전근대적 화폐제도로 말미암아 통상에서 큰 불편과 손해를 보고 있었다. 조선은 당백전 발행 이후 심각해진 화폐 제도의 혼란을 극복하고 전근대적 화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원유한, 2008).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조선은 1883년 7월 근대적 조폐기관인 전환국을 창덕궁 부근의 원동(苑洞, 현재의 원서동)에 설치하고, 8월 민태호(閔台鎬)를 관리사무(管理事務)에, 이중칠(李重七)을 총판(總辦)에, 안정옥(安鼎玉)과 권용철(權用哲)을 방판(幫辦)에 임명하였다(오두환, 1991). 이들의 전직(前職)이나 직역(職役)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환국의 주요 보직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배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다른 관청에서와 같이 일반 관리직으로 부임한 인물들이 전환국의 주요 보직을 독차지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영준, 2014). 다만 전환국 설립 초기의 관제(官制)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전환국이 설립될 당시에는 재정 궁핍이 극심했기 때문에 전환국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제조·공급할 수 없었다. 여러 주전소에서 화폐가 마구 발행됨에 따라 당오전의 시세가 크게 하락하자 조선 조정은 1883년 10월부터 전환국에서는 당오전만 주조하고, 그 외의 주전소에서는 엽전만 주조하게 하였다(한국은행, 2006).

일찍이 당오전의 주조·유통을 지지하는 등 조선의 화폐정책 운용에 참여한 독일인 뮐렌도르프(P. G. von Möllendorff, 穆麟德)는 1883년 말 근대 화폐의 제조 계획서를 고종에게 제출하였고, 고종은 1884년(고종 21년) 2월 그를 전환국 총판에 추가로 임명하였다. 뮐렌도르프는 당시의 전환국 건물이 매우 협소하고 구조가 견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환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 새로운 전환국 건물은 당시 선혜청(宣惠廳) 창고 자리에 1885년(고종 22년) 11월 준공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경성전환국이다(원유한, 2006).

경성전환국 건물이 완공되자 뮐렌도르프는 독일에서 근대적 조폐기기를 도입하고 독일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화폐 제조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화폐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형의 소전(素錢)과 극인(極印)도 독일에서 수입하였으나 극인에 문제가 있어 일본의 조폐국 기사를 초빙하여 이를 수리하고 시험용 주화 즉, 시주화(試鑄貨)를 제조하였다(박준채, 1980).

이들 시주화는 을유년(乙酉年, 1885년)에 제조되었다고 하여 ‘을유시주화(乙酉試鑄貨)’라고 불리는데 전면에는 국장인 태극휘장(太極徽章)을, 태극휘장 좌우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오얏나무 가지를 넣었고, 후면 중앙에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용을 새겨 넣었다. 1885년에 발행된 을유시주화로는 일량(一兩) 주석 시주화와 오문(五文) 청동 시주화가 있다. 화폐의 제원을 보면 일량 주석 시주화는 직경 및 두께가 24.0×1.5mm, 중량이 3.5g, 오문 청동 시주화는 직경 및 두께가 17.0×1.25mm, 중량이 1.5g이다(<http://www.hwadong.com>).

1886년(개국 495년)에는 주석에 금도금을 한 금화용 5종(20환, 10환, 5환, 2환, 1환), 주석에 은도금을 한 은화용 5종(1환, 5량, 2량, 1량, 반량) 그리고 구리를 소재로 한 청동화용 5종(20문, 10문, 5문, 2문, 1문) 등 총 15종, 30세트의 시주화가 제조되었다(대광사, 2018; 오성K&C, 2018)(그림 1, 그림 2). 금화용 시주화 5종의 제원은 가장 크고 무거운 20환 시주화의 직경 및 두께가 36.0×2.0mm, 중량이 14.5g, 가장 작고 가벼운 1환 시주화의 직경 및 두께가 13.5×1.0mm, 중량이 1.0g이다. 은화용 시주화 5종의 제원은 가장 크고 무거운 1환 시주화의 직경 및 두께가 38.0×2.5mm, 중량이 16.0g, 가장 작고 가벼운 반량 시주화의 직경 및 두께가 15.0×0.5mm, 중량이 1.0g이다. 마지막으로 동화용 시주화 5종의 제원은 가장 크고 무거운 20문 시주화의 직경 및 두께가 32.0×2.0mm, 중량이 11.5g, 가장 작고 가벼운 1문 시주화의 직경 및 두께가 15.0×1.0mm, 중량이 1.0g이다(<http://www.hwadong.com>).

일반적으로 시주화가 나오면 그 시주화에 기반한 통용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 상례인데, 전술한 15종의 시주화 가운데 통용 화폐로 빛을 본 것은 은화인 태극휘장 일환 화폐와 적동화인 태극휘장 십문 및 오문 화폐 등 3종에 불과하였다. ‘태극휘장 시리즈’로 불리는 이들 화폐는 모두 개국 497년(1888년)의 연호로 제조되었으며, 발행량은 일환 은화가 약 1,300매, 십문 및 오문 적동화의 합이 약 4,000매로 매우 적었다(원유한, 2006).

태극휘장 시리즈를 보면 화폐 앞면 상부에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조선 왕실을 의미하는 오얏나무 가지가 화폐의 액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뒷면에는 하늘로 비상하는 암수 두 마리의 용이 있고, 용 주변에는 국호, 발행 연도, 액면 등이 표기되어 있다(그림 3). 그리고 일환 은화 뒷면에는 416과 9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416은 416grain(=26.96g)이라는 무게를, 900은 90%의 은 순도

를 나타낸다. 1grain은 쌀, 보리, 밀 등 곡물 알갱이 1개의 무게(65mg)를 의미하며, 416grain은 416×65mg=26,956mg 즉, 26.96g이다.

경성전환국에서 제조한 화폐는 발행량이 매우 적었고,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5종에 달하는 금·은·동화를 제조·유통하고자 하는 계획은 그간 상평통보라는 동화(銅貨)만 유통되던 상황에서 매우 비현실적이었다. 둘째, 화폐 제조의 주요 소재인 금·은 보유량과 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국가 재정 형편으로는 경성전환국의 운영 자금도 큰 부담이 되었다. 또한 화폐 제조에 따른 제조 차익도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근대 화폐의 제조와 유통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경성전환국에서는 근대적 조폐시



그림 1. 1886년(개국 495년)에 발행된 일환 은화 시주화



그림 2. 1886년(개국 495년)에 발행된 십문 적동화 시주화



그림 3. 1888년(개국 497년)에 발행된 오문 적동화(태극휘장 시리즈)

설로 당오전을 제조하였고, 평양에 전환국 분소를 설치하여 당오전과 상평통보를 주조하였다. 경성전환국의 근대적 조폐시설은 후에 인천전환국에서 다시 활용되었다(한국은행, 2015).

IV. 인천전환국(仁川典圀局)에서 발행한 근대 화폐

1890년대에 이르러 당시 유통되던 조선의 화폐로는 외국과의 통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이미 일본 은화, 중국 마제는, 러시아 루블 은화, 멕시코 은화 등 다양한 외국 은화가 대량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조선도 선진 각국과 같이 은분위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1891년(고종 28년) 전환국 방관 안경수(安駟壽)가 상평통보 주조를 위해 오사카에 체류할 때 지인인 임유조(林有造)를 통해 제58은행장(第五十八銀行長) 오오미와 초베(大三輪長兵衛)를 소개받았고, 오오미와는 다시 오사카제강회사(大阪製鋼會社) 사장인 마쓰다 노부유키(増田信之)를 소개하였다. 마쓰다는 조선에 서양식 근대 화폐의 도입을 제안하였고, 안경수로부터 마쓰다의 제안을 보고받은 조선 조정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원유한, 1968). 이에 조선 조정은 근대 화폐를 발행하기

로 하고, 당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던 은분위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대조선국화폐조례(大朝鮮國貨幣條例)」를 제정하였다. 마쓰다는 조선에 직접 자금을 대부하고, 일본 정부가 전환국 운영 자금을 기부하도록 주선하였다. 그 대부금의 담보로 전환국 감독을 위임받은 마쓰다는 10여 명의 일본인을 사무원과 기술자로 초빙하였다(박준채, 1980). 「대조선국화폐조례」에 따라 1892년 말까지 약 23만 원의 화폐가 제조되었으나 해당 조례는 마쓰다와 오오미와의 이해관계 충돌, 청의 간섭, 엽전 주조 이권을 장악하고 있던 조정 내 세력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 버렸다(도면희, 1989).

전환국을 장악한 마쓰다는 전환국의 인천 이전을 추진하였다. 전환국을 경성에서 인천(현재의 동인천동 행복복지센터와 미추홀 문화회관 자리)으로 이전하려고 한 이유는 화폐 원료인 동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경성까지 운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환국의 이전을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다. 인천전환국 신축공사는 1892년 5월에 시작되었고, 동년 11월 건축 및 기계 설비를 설치하여 12월에 시운전을 하였다(원유한, 1968). 인천전환국의 건물은 총 3동으로 중앙에는 사무실, 화폐조조사실, 검인실 등이 있었고, 동쪽에는 기계실과 기관실, 서쪽에는 조각과 창고 및 감찰실이 있었다(그림 4). 인천전환국에는 모두 9대의 압인기가 설치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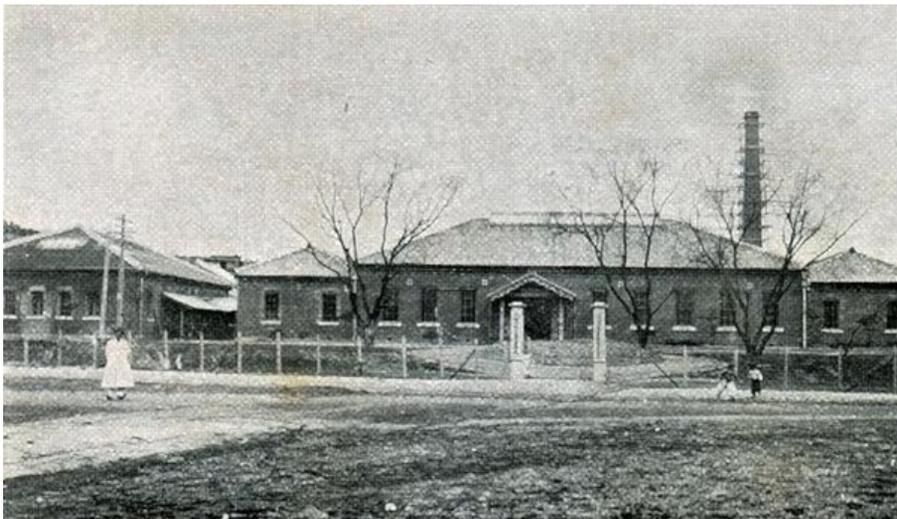


그림 4. 인천전환국 전경

출처 : 인천광역시.

성전환국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오사카 조폐국에서 도입하였다(기호일보, 2008년 2월 4일자).

인천전환국에서는 먼저 닳량 은화를, 다음으로 오픈 적동화를 압인(壓印)하였고, 계속 각종 화폐의 압인을 시행하였다. 화폐의 소전은 오사카조폐국에서 닳량 소전 2만 개, 한량 소전 1차 23만 4천 6백 35개와 2차 14만 5천 개를 수입하였고, 오사카제강회사로부터 백동화, 적동화, 황동화 등의 소전을 공급받았다. 당시 인천전환국은 용해 압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일본에서 소전을 수입하여 압인 가공만 하였다(박준재, 1980).

인천전환국에서 제조한 화폐는 경성전환국에서 제조한 화폐와 문양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모든 액면의 화폐에 오얏꽃(李花) 문양이 새겨져 있어 ‘이화휘장(李花徽章) 시리즈’로 불리는 이들 화폐 중 가장 크고 화려한 화폐는 닳량(五兩) 은화이다(그림 5). 닳량 은화를 보면 전면의 중앙 윗부분에 태극 문양 대신 조선 왕조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이 들어갔고, 좌우의 오얏나무 가지 중 왼쪽의 것은 무궁화나무 가지로 바뀌었다. 후면에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쌍용(雙龍)이 새겨져 있는데 역센 발톱으로 여의주를 움켜쥔 용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쌍용 주변의 416이라는 숫자는 416grain(=26.96g)이라는 무게를, 900이라는 숫자는 90%의 은 순도를 의미한다. 또한 화폐에 중국 연호 대신 ‘개국(開國) 501년’이란 조선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국호는 ‘대조선(大朝鮮)’으로 표기하여 조선의 자주성을 강조하였다.

1892년(개국 501년)에 발행된 이화휘장 시리즈는 닳량 은화, 한량 은화, 두돈오픈 백동화, 오픈 적동화, 한푼 황동화 등 총 5종이다. 이중 닳량 은화와 한량 은화에는 동일한 형태의 쌍용 문양이 새겨져 있고, 두돈오픈 백동화, 오픈 적동화, 한푼 황동화 등에는 해학적 느낌의 쌍용 문양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화폐의 제원을 보면 닳량 은화는 직경 및 두께가 38.0×2.5mm, 중

량이 26.96g, 한량 은화는 직경 및 두께가 22.5×1.5mm, 중량이 5.2g이다. 그리고 두돈오픈 백동화는 직경 및 두께가 20.5×2.0mm, 중량이 5.0g, 오픈 적동화는 직경 및 두께가 27.0×1.5mm, 중량이 17.2g, 한푼 황동화는 직경 및 두께가 23.0×1.0mm, 중량이 3.5g이다(<http://www.hwadong.com>).

인천전환국이 설립된 후, 마쓰다와 오오미와가 이권을 놓고 계속 대립하자 조선은 건축비와 이자 등을 마쓰다에게 지급하고 1893년(고종 30년) 3월 전환국의 운영권을 되찾아왔다. 이후 인천전환국은 일본에서 기술 연수를 받은 조선 기술진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재정난과 기술 및 운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화폐 제조가 중단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1893년 7월 오사카조폐국에 극인 개조와 소전 제작을 의뢰하러 간 안경수는 새로운 닳량 은화의 극인(액면 표시가 一圓으로 변경)과 약간의 소전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그 후 운영이 중단되었던 인천전환국은 재가동되었으나 운영 중단이 반복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였다(한국은행, 2006).

경성전환국이 인천으로 이전되고 2년이 지난 1894년 6월 일본은 개화파를 사주하여 내정 개혁에 착수하였다. 내정 개혁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관제 개혁이었다. 관제 개혁에 따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전환국은 탁지아문(度支衙門)의 10개 국(局) 중 1개 국으로 탁지아문에 속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제(職制)도 대폭 감축되었다. 이후 조폐사업의 확장에 따라 직제를 확장하였다(원유한, 1968).

1894년 7월에는 근대적 화폐 조례인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이 공포되고 은본위제가 시행되면서 인천전환국에서는 「신식화폐발행장정」에 따라 근대 화폐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신식화폐발행장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화된 화폐 법규로 그 내용은 대부분 일본의 은본위제를 모방한 것이었다. 그런데 본위화로 규정된 닳량 은화는 「신식화폐발행장정」에 따라 계속 제조되지 않았다. 단지 두돈오픈 백동화, 오픈 적동화, 한푼 황동화 등 보조 화폐만 「신식화폐발행장정」에 따라 제조되었다(원유한, 2008). 이 당시는 본위화인 닳량 은화 대신 보조 화폐인 두돈오픈 백동화, 오픈 적동화 등이 마구 잡이로 발행되면서 경제 질서가 매우 문란하였다. 또한 일본 화폐가 우리나라로 대량 유입되었고, 일본의 원은화(圓銀貨)가 우리나라의 닳량 은화를 대신하여 본위화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한국조폐공사, 1993).



그림 5. 1892년(개국 501년)에 발행된 닳량 은화(이화휘장 시리즈)

한편 인천전환국에서 제조한 새로운 화폐는 제조 후 3년이나 사장된 채 유통되지 못하였다. 이는 인천전환국의 화폐 제조량이 수요량에 비해 적었고, 신·구 화폐의 교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袁世凱)가 1892년에 제조된 화폐의 국호 표시를 ‘대조선’에서 ‘조선’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조선의 자주성을 말살하려고 한 위안스카이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1893년(개국 502년) 이후에 제조된 화폐의 국호는 ‘조선’으로 표기되었으나 청일전쟁(1894년 6월~1895년 4월)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국호는 다시 ‘대조선’으로 변경되었다(한국은행, 2015). 그리고 1896년(개국 505년) 어느 시점부터는 화폐의 국호가 다시 ‘조선’으로 표기되기 시작하였다(표 1). 그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

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천전환국이 설립된 1892년부터 인천전환국이 폐쇄되기 직전인 1899년(광무 3년)까지 총 8년간 조선 및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액은 표 2와 같다. 표 2는 전환국 『주조총보(鑄造總報)』와 1914년 2월 발간된 『조선총독부월보(朝鮮總督府月報)』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주조총보』에는 1882년부터 1903년까지의 화폐 발행액이, 『조선총독부월보』에는 1882년부터 1904년까지의 화폐 발행액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지금도 역사학과 경제사학 분야의 학술 서적, 논문 등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조총보』와 『조선총독부월보』의 자료에 제시된 인천전환국의 화폐 발행액(표 2)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 먼저 표 2를 통해 1893년의 화폐 발행액을 살펴보면 닷량 은화, 한량 은화, 두돈오푼 백동화, 오푼 청동화,

표 1. 인천전환국에서 제조한 화폐의 국호 표기

연도	닷량	한량	두돈오푼	오푼	한푼
1892년(개국501년)	대조선	대조선	대조선	대조선	대조선
1893년(개국502년)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조선
1894년(개국503년)	-	조선	조선	조선	-
1895년(개국504년)	-	조선, 대조선	조선, 대조선	조선, 대조선	조선, 대조선
1896년(개국505년)	-	조선	조선	조선, 대조선	대조선
1897년(광무원년)	-	대한	대한	-	-
1898년(광무2년)	-	대한	대한	대한	-
1899년(광무3년)	-	-	-	대한	-

* 1900년은 전환국이 인천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해로 두 전환국에서 발행한 화폐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제외하였음.

** 1893년에 발행된 닷량 은화는 닷량, 일환(1WHAN)이라는 표기가 병기되어 있어 일환 은화라고도 불림.

표 2. 인천전환국의 화폐 발행액

연도	닷량 은화	한량 은화	두돈오푼 백동화	오푼 적동화	한푼 황동화	계
1892년(개국501년)	19.9	70.4	51.9	1.7	0.9	234.8
1893년(개국502년)	-	-	-	-	-	0
1894년(개국503년)	-	-	-	35.6	-	35.6
1895년(개국504년)	-	-	160.9	176.5	4.2	341.6
1896년(개국505년)	-	-	34.6	284.4	-	318.9
1897년(광무원년)	-	-	17.3	28.4	-	45.7
1898년(광무2년)	-	35.8	349.0	248.3	-	633.1
1899년(광무3년)	-	63.0	1,281.6	34.2	-	1,378.8

(단위: 천원)

* 1900년은 전환국이 인천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해로 두 전환국에서 발행한 화폐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제외하였음.

** 1893년에 발행된 닷량 은화는 닷량, 일환(1WHAN)이라는 표기가 병기되어 있어 일환 은화라고도 불림.

출처 : 전환국 주조총보, 조선총독부월보(1914년 2월).

한푼 황동화 등 총 5종의 화폐가 미발행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1894년(개국 503년)에는 두돈오푼 백동화, 1896년에는 한푼 황동화가 미발행으로 표기되어 있다. 연구자는 1893년에 발행된 닛량 은화, 한량 은화, 두돈오푼 백동화, 오푼 적동화, 한푼 황동화 등 총 5종의 화폐를 모두 그림(사진)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조총보』와 『조선총독부월보』의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였다(그림 6). 그리고 1894년에 발행된 두돈오푼 백동화와 1896년에 발행된 한푼 황동화의 실물도 직접 확인하였다. 즉, 1893년에는 화폐가 전혀 발행되지 않았고, 1894년에 두돈오푼 백동화와 1896년에 한푼 황동화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연구자는 이러한 일련의 확인 과정을 통해 표 2에 제시된 1893년, 1894년, 1896

년 등 여러 연도의 화폐 발행액과 이들 연도의 실제 화폐 발행액 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계 최대의 화폐 인증업체인 NGC(Numismatic Guaranty Company)의 자료를 통해서도 표 2에 나타난 오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NGC는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화폐의 진위를 판별하고, 화폐의 보존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인증하며, 인증된 모든 화폐의 실제 사진과 등급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화폐 인증업체이다. 연구자는 NGC의 한국 화폐 자료를 통해서도 1893년에 발행된 5종의 화폐, 1894년의 두돈오푼 백동화, 1896년의 한푼 황동화 등이 실제로 존재함을 파악하였다(표 3).

일각에서는 『주조총보』와 『조선총독부월보』의 자료가 음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화폐 발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물론 1년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력 1892년 1월 1일은 양력 1892년 1월 30일이기 때문에 양력 1892년 1월 1일부터 1892년 1월 29일 사이에 발행된 화폐는 음력 기준으로는 1891년에 발행된 것으로 통계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주조총보』와 『조선총독부월보』의 자료에는 두돈오푼 백동화가 1893년과 1894년 2년 연속 미발행으로 표기되어 있다. 음력 1893년 1월 1일은 양력 1893년 2월 17일이고, 음력 1895년 1월 1일은 양력 1895년 1월 26일이다. 만약 『주조총보』와 『조선총독부월보』의 자료가 음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한다면 음력으로 1893년 1월 1일부터 1894년 12월 31일까지 즉, 양력으로는 1893년 2월 17일부터 1895년 1월 25일까지 두돈오푼 백동화는 발행되지 않은 것이 된다. 결국 기간 설정을 음력으로 하든, 양력으로 하든 1894년에 발행된 두돈오푼 백동화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세계 최대의 화폐 인증업체인 NGC의 통계를 보면 1894년에 발행된 두돈오푼 백동화가 최소 6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3). 이 외에도 PCGS(Professional Coin Grading Service)를 비롯한 다른 화폐 인증업체의 인증 수량과 인증을 받지 않은 두돈오푼 백동화의 수량까지 모두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연구자는 『주조총보』와 『조선총독부월보』의 자료가 명백한 오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주조총보』와 『조선총독부월보』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표 2에는 1899년에 한량 은화와 1897년(광무 원년)에 오푼 적동화가 상당액 발행되었다고 표기되어 있



그림 6. 1893년(개국 502년)에 발행된 닛량 은화(a), 한량 은화(b), 두돈오푼 백동화(c), 오푼 적동화(d), 한푼 황동화(e)(이화회장 시리즈)

표 3. 인천전환국에서 발행한 화폐의 NGC 인증 수량(2024년 12월 31일)

연도	닷량 은화	한량 은화	두돈오피온 백동화	오피온 적동화	한푼 황동화	계
1892년(개국501년)	316	288	94	211	302	1,211
1893년(개국502년)	16	274	262	184	110	846
1894년(개국503년)	-	-	61	147	-	208
1895년(개국504년)	-	-	176	319	412	907
1896년(개국505년)	-	-	150	625	69	844
1897년(광무원년)	-	-	19	-	-	19
1898년(광무2년)	-	317	1,411	550	-	2,278
1899년(광무3년)	-	-	28	5	-	33

(단위: 개)

* 1900년은 전환국이 인천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해로 두 전환국에서 발행한 화폐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제외하였음.
 ** 1893년에 발행된 닷량 은화는 닷량, 일환(1WHAN)이라는 표기가 병기되어 있어 일환 은화라고도 불림.
 출처 : NGC, 2024.

으나 20년간 한국 화폐를 수집한 연구자는 이들 화폐를 본 적도, 이들 화폐를 보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다. 그리고 NGC의 자료에도 이들 화폐의 인증 수량은 모두 0으로 표기되어 있다(표 3). 만약 표 2에 명기된 대로 1899년에 한량 은화와 1897년에 오피온 적동화가 발행되었다면 최소 수집 점의 화폐 실물이 남아 있어야 하고, NGC의 자료에도 인증 수량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V. 용산전환국(龍山典圖局)에서 발행한 근대 화폐

대한제국은 화폐 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하여 인천전환국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1898년(광무 2년) 8월에 시작된 확장 공사는 일본인 마쓰다가 맡아 진행하였다. 그러나 확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무렵, 전환국을 용산으로 이전하라는 고종 황제의 명이 내려져 공사가 중단되었다. 고종이 이 같은 명을 내린 이유는 경인선(京仁線)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경성과 인천 간 물자 수송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종이 대한제국의 화폐 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에 맞서 전환국을 경성으로 이전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한국은행, 2006).

1898년 9월 조선은 마쓰다와 용산전환국 건축 계약을 맺고, 동년 10월 당시 군자감(軍資監) 창고자리(현재의 용산구 원효로 부근)에서 용산전환국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공사는 화재 등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다가 1900년

5월 비로소 건물이 완공되었다. 그 후 1900년 8월 인천전환국의 조폐시설을 용산으로 이전하였고, 9월부터는 두돈오피온 백동화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한국은행, 2015).

전환국 관제는 1900년 1월 재차 변화를 겪게 된다. 그 결과 전환국은 탁지부(度支部) 소속 이등국(二等局)에서 일등국(一等局)이 되었고, 직제가 대폭 확장되는 동시에 관장 업무도 늘어나게 되었다. 1900년 5월에는 탁지부 소속 일등국이었던 전환국이 다시 독립기관이 되면서 관리직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1901년(광무 5년) 2월에는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이었던 러시아인 알렉세프(K. Alexieff, 憂襟變)의 건의에 따라 전환국을 다시 탁지부의 1개 국으로 편입시켰다. 1902년(광무 6년) 2월에는 전환국이 탁지부에서 또다시 분리되어 독립기관이 되었다. 이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용산전환국은 완전히 폐지되었다(원유한, 1968).

1890년대 들어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금본위제도를 시행하였고, 러시아와 일본도 각각 1893년과 1897년에 금본위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대한제국도 1901년 2월 금본위제도를 채택하는 「화폐조례(貨幣條例)」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조례는 당시 탁지부 고문이었던 러시아인 알렉세프의 영향을 받은 친러파에 의해 추진되었다. 조례의 주된 목적은 금본위제도의 시행이었지만 이면에는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일본 은화의 통용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재정 궁핍으로 인해 금화를 제조하지 못하였고, 이 조례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하나의 시도로 끝나고 말았다(한국은행, 2015).

용산전환국에서는 「화폐조례」에 따라 화폐를 제조하였는데, 화폐 전면에는 조선 왕조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 즉, 이화휘장을 새겨 넣었고, 이화휘장 좌우에는 오얏나무 가지를 배치하였다. 화폐 후면의 문양은 기존의 용에서 독수리로 바뀌었다. 독수리 문양은 러시아의 쌍두(雙頭) 독수리를 모방한 것으로 독수리 가슴에는 팔괘(八卦)로 둘러싸인 태극장이 새겨져 있어 한민족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연호는 대한제국의 연호인 ‘광무(光武)’를 사용하였고, 국호는 ‘대한(大韓)’으로 표기하였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901년 6월부터 9월까지 독수리 문양의 반원 은화가 제조되었으나 이들 화폐는 끝내 발행되지 못한 채 러일전쟁 중 일본 오사카조폐국으로 보내져 용해되었다. 그리고 1901년 십원 금화가 소량 제조되었고, 1902년에는 이십전 은화, 오전 백동화, 일전 적동화 등 3종의 화폐가 시주화로 제조되었을 뿐 발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원유한, 2008).

당시 실제로 발행·유통된 화폐로는 1901년 독수리 문양의 반원 은화, 1902년 독수리 문양의 오전 백동화와 일전 적동화 등 최소 3종의 화폐가 있다. 그 근거로는 이들 화폐의 실물 그림(사진)과 세계 최대의 화폐 인증업체인 NGC의 자료를 들 수 있다(그림 7, 그림 8, 그림 9, 표 4). 독수리 문양 화폐의 제원은 반원 은화가 직경 및 두께 31.0×2.5mm, 중량 13.5g, 오전 백동화가 직경 및 두께 20.5×2.0mm, 중량 4.3g, 일전 적동화가 직경 및 두께 28.0×1.5mm, 중량 6.8g으로 알려져 있다(<http://www.hwadong.com>).

연구자는 1901년에 발행된 독수리 문양의 반원 은화, 1902년에 발행된 독수리 문양의 오전 백동화와 일전 적동화의 실물을 모두 확인하였고, NGC의 자료를 통해서 이들 화폐의 인증 수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표 4). 또한 1899년에 제조된 독수리 문양의 반원 시주화, 1901년과 1903년(광무 7년)에 제조된 독수리 문양의 십원 금도금 시주화, 1902년에 제조된 독수리 문양의 이십원 금도금 시주화 등이 헤리티지 경매(Heritage Auctions, <http://www.ha.com>)를 비롯한 외국의 유명 경매회사에

서 판매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반면 「주조총보」와 「조선총독부월보」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표 5에는 1902년에 반원 은화, 백동취화, 두돈 오픈 백동화, 1903년과 1904년에 백동취화, 두돈 오픈 백동화, 오픈 적동화 등이 상당액 발행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들 화폐의 실물이 출현한 적은 한번도 없었고, NGC의 자료에도 이들 화폐의 인증 수량은 모두 0으로



그림 7. 1901년(광무 5년)에 발행된 독수리 문양의 반원 은화



그림 8. 1902년(광무 6년)에 발행된 독수리 문양의 오전 백동화



그림 9. 1902년(광무 6년)에 발행된 독수리 문양의 일전 적동화

표 4. 독수리 문양 화폐의 NGC 인증 수량(2024년 12월 31일)

연도	반원 은화	오전 백동화	일전 적동화	계
1901년(광무5년)	15	-	-	15
1902년(광무6년)	-	17	6	23

(단위: 개)

출처 : NGC, 2024.

표기되어 있다(표 6). 이러한 사실은 이들 화폐가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두돈오푼 백동화 즉, 백동취화는 다른 화종(貨種)과 달리 단 한번도 실체를 드러낸 적이 없어 발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용산전환국에서 발행한 근대 화폐 중 두돈오푼 백동화는 화폐 발행액(표 5)과 NGC 인증 수량(표 6) 간 차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두돈오푼 백동화의 발행액은 1903년과 1904년 각각 전체 화폐 발행액의 97%와 99% 이상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화폐의 인증 수량은 모두 0으로 표기되어 있다(표 5, 표 6). 이는 혼란스럽던 조선시대 말기에 전환국 『주조총보』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연구자는 화폐 발행액과 NGC 인증 수량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진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1898년부터 급증한 화폐 발행액은 전환국이 용산으로 이전한 후에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두돈오푼 백동화의 제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01년에는 전체 화폐 발행액 3,083.6천 원 중 두돈오푼 백동화의 발행액이 2,873.8천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5). 당시 발행된 두돈오푼 백동화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환국에서 제조한 관주전(官鑄錢)으로 관주전은 1903년 4월 5일 발행이 정지되었다. 둘째, 민간인이 황실에 돈을 내고 특별 허가를 받아 제조한 특주전(特鑄錢)이 있다. 황실은 두돈오푼 백동화를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인에게 주면서 ‘계(啓)’자가 날인된 특허장을 주었다. 셋째, 민간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제조한 사주전(私鑄錢)이 있다. 당시 사주전은 시중에 많은 양이 유통되었는데 특히 일본인이 사주전 위조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두돈오푼 백동화는 일본인이 조선인과 결탁하여 국내에서 위조하거나 일본에서 위조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도 하였다. 사주전은 백동화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박준채, 1980).

이러한 두돈오푼 백동화의 남발은 1897년 10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금본위제와 그로 인한 대한제국 내 일본 은화의 대량 유출에서 비롯되었다. 대한제국에서 본위화 내지 고액 화폐로의 기능을 하던 일본 은화의 대량 유출과 이로 인한 화폐 유통량의 감소 및 상품 유통의 경색에 대해 대한제국은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대한제국은 화폐 발행액을 대폭 늘렸는데 문제는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위화인 닷량 은화의 발행 대신 보조화인 두돈오푼 백동화를 남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김

표 5. 용산전환국의 화폐 발행액

연도	반원 은화	백동 취화	두돈오푼 백동화	오푼 적동화	계
1901년(광무5년)	209.7	-	2,873.8	-	3,083.6
1902년(광무6년)	705.6	87.3	2,885.9	14.8	3,693.5
1903년(광무7년)	-	34.1	3,610.2	57.6	3,701.9
1904년(광무8년)	-	4.5	3,447.9	10.2	3,462.6

(단위: 천원)

* 1900년은 전환국이 인천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해로 두 전환국에서 발행한 화폐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제외하였음.

** 백동취화는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두돈오푼 백동화라고 함.

출처 : 전환국 주조총보, 조선총독부월보(1914년 2월).

표 6. 용산전환국에서 발행한 화폐의 NGC 인증 수량(2024년 12월 31일)

연도	반원 은화	두돈오푼 백동화	오푼 적동화	계
1901년(광무5년)	15	20	-	35
1902년(광무6년)	-	-	388	388
1903년(광무7년)	-	-	-	-
1904년(광무8년)	-	-	-	-

(단위: 개)

* 1900년은 전환국이 인천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해로 두 전환국에서 발행한 화폐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제외하였음.

출처 : NGC, 2024.

희호, 2022).

대한제국이 두돈오푼 백동화를 남발한 가장 큰 이유는 백동화의 제조 이익이 다른 어떤 화폐의 제조 이익보다 컸기 때문이다. 두돈오푼 백동화는 재질이 조악하여 액면 가치가 소재 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발행하면 할수록 화폐의 제조 이익은 늘어났다(김희호, 2022). 대한제국은 전환국의 두돈오푼 백동화 과잉 발행과 더불어 내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허용한 특주(特鑄)를 통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1900년 말부터는 내외국인에 의한 두돈오푼 백동화의 사주(私鑄)와 밀수입이 성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적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도면희, 1989).

이 당시 제물포에서 유통된 두돈오푼 백동화는 총 576종으로 이중 관주전이 16종, 각종 형태의 사주전이 560종이었다. 그리고 전국의 두돈오푼 백동화 유통액은 관주전이 약 800만 원, 사주전이 약 600만 원이었다. 이러한 화폐 유통의 난맥상으로 인해 가치가 안정적인 일본 화폐의 선호도는 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오두환, 1991).

두돈오푼 백동화의 남발은 전국의 화폐 유통권을 공간적으로 분할하였고, 그 결과 두돈오푼 백동화 유통권과 엽전 유통권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화폐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초기에 두돈오푼 백동화는 경인지역에서 발행되기 시작하였고, 유통권도 경인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돈오푼 백동화를 대량 제조하면서 화폐 가

치의 하락이 나타났고, 유통권도 점차 확대되어 1901년 경에는 두돈오푼 백동화가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등에서도 널리 유통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등은 여전히 엽전 유통권으로 남아 있었다(원유한, 2008).

VI. 전환국의 폐지와 화폐정리사업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04년 5월부터 대한제국의 군사, 외교, 재정, 교통, 통신, 산업 등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재정 및 외교 분야에서 일본이 추천한 고문을 용빙(傭聘)하도록 하였고, 1904년 10월 일본인 메가타 다넨타로(目賀田種太郎)가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취임하였다. 메가타는 제1차 한일협약(1904년 8월)에 따라 대한제국의 재정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그 집행권리까지 장악하였다(박평식, 2019).

메가타가 재정 정리라는 명목으로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은 1904년 11월 용산전환국을 폐지하고(그림 10), 조폐업무를 일본 오사카조폐국에 위탁하는 일이었다. 대한제국은 메가타의 건의에 따라 1901년 2월 발표한「화폐조례」를 1905년 6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광무9년 화폐조례’라고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01년의



그림 10. 용산전환국 폐지 후, 그 자리에 들어선 탁지부 인쇄국 전경(1910년)

출처 : 통감부 일영박람회 사진첩.

「화폐조례」는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대한제국은 1905년 6월부터 금본위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본위화의 기능을 할 금화는 거의 발행하지 않고, 대신 일본은행이 발행한 일본은행권과 이를 기초로 제일은행이 발행한 제일은행권을 대한제국의 본위화를 등장시켰다(원유한, 2008).

또한 화폐정리사업을 개시하여 기존의 두돈오푼 백동화와 엽전을 새로이 발행된 신화폐로 교체하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1905년 7월에는 경성, 평양, 인천, 군산, 진남포 등에 화폐교환소를 설치하고, 그동안 화폐제도 문란의 원인이었던 두돈오푼 백동화를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화폐 교환 가격은 두돈오푼 백동화의 품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갑종은 2.5전, 을종은 1전으로 정하였다. 반면 품질이 매우 낮은 병종은 무효로 처리하였다(澁澤榮一, 1909). 두돈오푼 백동화의 회수는 신속히 진행되어 1907년(광무 11년, 융희 원년)에는 대부분 회수를 끝내고 통용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두돈오푼 백동화는 1909년(융희 2년) 말까지 공납금(公納金) 납부에만 사용하게 하여 전량 회수하였다(한국조폐공사, 1993). 이와 같은 화폐정리사업은 짧은 공고 기간을 거쳐 전격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 심각한 금융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1905년 6월 1일부터 일본의 화폐제도와 동일한 화폐제도가 대한제국에서 시행되었으며, 모든 거래에서 일본 화폐가 합법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화폐 정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대한제국의 발권은행이 된 제일은행은 1905년 4월 일본 오사카조폐국과 계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화폐를 오사카조폐국에서 제조·발행하였다(박평식, 2019). 오사카조폐국은 1905년부터 1910년(융희 4년)까지 3종의 금화(이십원, 십원, 오원), 3종의 은화(반원, 이십전, 십전), 1종의 백동화(오전), 2종의 적동화(일전, 반전) 등 총 9종의 화폐를 제조하였다(대광사, 2018; 오성K&C, 2018). 이로써 대한제국은 국가의 화폐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일본의 화폐제도에 철저히 종속되었다.

VII. 요약 및 결론

폐쇄 사회였던 조선은 개항을 계기로 급격히 개방되면서 전근대적 화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조선은

1883년 7월 근대적 조폐기관인 전환국을 창덕궁 부근의 원동에 설치하였다.

1884년 2월 전환국 총판에 임명된 독일인 뮐렌도르프는 전환국을 원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 새로운 전환국 건물은 당시 선혜청 창고 자리에 1885년 11월 준공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경성전환국이다. 경성전환국 건물이 완공되자 뮐렌도르프는 화폐 제조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 당시 제조된 최초의 시주화는 을유년(1885년)에 제조되었다고 하여 ‘을유시주화’라고 불린다. 을유시주화의 전면에는 국장인 태극휘장을, 태극휘장 좌우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오얏나무 가지를 넣었고, 후면 중앙에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용을 새겨 넣었다. 1885년에 발행된 을유시주화로는 일량 주석 시주화와 오문 청동 시주화가 있다.

1886년에는 주석에 금도금을 한 금화용 5종, 주석에 은도금을 한 은화용 5종 그리고 구리를 소재로 한 청동화용 5종 등 총 15종, 30세트의 시주화가 제조되었다. 이들 15종의 시주화 가운데 통용 화폐로 빛을 본 것은 은화인 태극휘장 일환 화폐와 적동화인 태극휘장 십문 및 오문 화폐 등 3종에 불과하였다.

1891년 오사카제강회사 사장인 마쓰다 노부유키는 조선에 서양식 근대 화폐의 도입을 제안하였고, 조선 조정은 은본위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조선국화폐조례」를 제정하였다. 전환국을 장악한 마쓰다는 전환국의 인천 이전을 추진하였다. 전환국을 경성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려고 한 이유는 화폐 원료인 동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경성까지 운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환국의 이전을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다. 인천전환국 신축공사는 1892년 5월에 시작되었고, 동년 11월 건축 및 기계 설비를 설치하여 12월에 시운전을 하였다.

인천전환국에서 제조한 화폐는 경성전환국에서 제조한 화폐와 문양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모든 액면의 화폐에 오얏꽃 문양이 새겨져 있어 ‘이화휘장 시리즈’로 불리는 이들 화폐 중 가장 크고 화려한 화폐는 닷량 은화이다. 닷량 은화 전면의 중앙 윗부분에는 태극 문양 대신 조선 왕조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이 들어갔고, 좌우의 오얏나무 가지 중 왼편의 것은 무궁화나무 가지로 바뀌었다. 후면에는 쌍용이 새겨져 있다. 또한 화폐에 중국 연호 대신 ‘개국 501년’이란 조선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국

호는 ‘대조선’으로 표기하여 조선의 자주성을 강조하였다.

1892년에 발행된 이화회장 시리즈는 닳량 은화, 한량 은화, 두돈오푼 백동화, 오피 적동화, 한푼 황동화 등 총 5종이다. 이중 닳량 은화와 한량 은화에는 동일한 형태의 쌍용 문양이 새겨져 있고, 두돈오푼 백동화, 오피 적동화, 한푼 황동화 등에는 해학적 느낌의 쌍용 문양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선은 1893년 3월 마쓰다로부터 전환국의 운영권을 되찾아왔으나 재정난과 기술 및 운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화폐 제조가 중단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인천전환국에서 제조한 새로운 화폐는 제조 후 3년이나 유통되지 못하였다. 이는 인천전환국의 화폐 제조량이 적었고, 신·구 화폐의 교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가 1892년에 제조된 화폐의 국호 표시를 ‘대조선’에서 ‘조선’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조선의 자주성을 말살하려고 한 위안스카이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1893년 이후에 제조된 화폐의 국호는 ‘조선’으로 표기되었으나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국호는 다시 ‘대조선’으로 변경되었다.

전환국 『주조총보』와 『조선총독부월보』에 따르면 1893년에는 닳량 은화, 한량 은화, 두돈오푼 백동화, 오피 적동화, 한푼 황동화 등이 발행되지 않았다. 또한 1894년에는 두돈오푼 백동화, 1896년에는 한푼 황동화가 발행되지 않았다. 연구자는 1893년에 발행된 닳량 은화, 한량 은화, 두돈오푼 백동화, 오피 적동화, 한푼 황동화 등 총 5종의 화폐를 모두 사진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조총보』와 『조선총독부월보』의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1894년에 발행된 두돈오푼 백동화와 1896년에 발행된 한푼 황동화의 실물도 직접 확인하였다. 즉, 1893년에는 화폐가 전혀 발행되지 않았고, 1894년에 두돈오푼 백동화와 1896년에 한푼 황동화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대한제국은 화폐 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인천전환국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전환국을 용산으로 이전하라는 고종 황제의 명이 내려지면서 확장 공사는 중단되었다. 고종이 이 같은 명을 내린 이유는 경인선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경성과 인천 간 물자 수송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1898년 9월 조선은 마쓰다와 용산전환국 건축 계약을 맺고, 동년 10월 당시 군자감 창고 자리에서 용산전환국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공사는 여러 사정으로 지연

되다가 1900년 5월 건물이 완공되었다. 그 후 1900년 8월 인천전환국의 조폐시설을 용산으로 이전하였고, 9월부터는 두돈오푼 백동화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대한제국은 1901년 2월 금본위제도를 채택하는 「화폐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조례는 당시 탁지부 고문이었던 러시아인 알렉세프의 영향을 받은 친러파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재정 궁핍으로 인해 금화를 제조하지 못하였고, 이 조례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하나의 시도로 끝나고 말았다.

용산전환국에서는 「화폐조례」에 따라 화폐를 제조하였는데, 화폐 전면에는 조선 왕조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 즉, 이화회장을 새겨 넣었고, 이화회장 좌우에는 오얏나무 가지를 배치하였다. 화폐 후면의 문양은 기존의 용에서 독수리로 바뀌었다. 독수리 문양은 러시아의 쌍두 독수리를 모방한 것으로 독수리 가슴에는 팔괘로 둘러싸인 태극장이 새겨져 있어 한민족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연호는 대한제국의 연호인 ‘광무’를 사용하였고, 국호는 ‘대한’으로 표기하였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901년 6월부터 9월까지 독수리 문양의 반원 은화가 제조되었으나 이들 화폐는 끝내 발행되지 못한 채 러일전쟁 중 일본 오사카조폐국으로 보내져 용해되었다. 그리고 1901년 십원 금화가 소량 제조되었고, 1902년에는 이십원 은화, 오전 백동화, 일전 적동화 등 3종의 화폐가 시주화로 제조되었을 뿐 발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901년 독수리 문양의 반원 은화, 1902년 독수리 문양의 오전 백동화와 일전 적동화 등 최소 3종의 화폐가 발행·유통되었다. 연구자는 1901년에 발행된 독수리 문양의 반원 은화, 1902년에 발행된 독수리 문양의 오전 백동화와 일전 적동화의 실물을 모두 확인하였다. 또한 1899년에 독수리 문양의 반원 시주화, 1901년과 1903년에 독수리 문양의 십원 금도금 시주화, 1902년에 독수리 문양의 이십원 금도금 시주화 등이 제조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반면 『주조총보』와 『조선총독부월보』의 자료에는 1902년에 반원 은화, 백동취화, 두돈오푼 백동화, 1903년과 1904년에 백동취화, 두돈오푼 백동화, 오피 적동화 등이 상당액 발행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들 화폐의 실물이 출현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화폐가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1898년부터 급증한 화폐 발행액은 전환국이 용산

으로 이전한 후에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두돈
오푼 백동화의 제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전국의 화폐 유통권은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 평
안도 등의 두돈오푼 백동화 유통권과 전라도, 경상도, 함
경도 등의 엽전 유통권으로 양분되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
압하여 재정 및 외교 분야에서 일본이 추천한 고문을 용
병하도록 하였고, 1904년 10월 일본인 메카타 다네타로
가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에 취임하였다. 메카타는 재정
정리라는 명목으로 1904년 11월 전환국을 폐지하였고,
조폐업무를 일본 오사카조폐국에 위탁하였다. 이로써 대
한제국은 국가의 화폐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일본
의 화폐제도에 철저히 종속되었다.

본 논문은 전환국이 설립된 1883년부터 전환국이 폐지
된 1904년까지 발행된 근대 화폐를 전환국의 공간적 변
천에 따라 살펴보고, 이들 화폐의 다양한 특징과 차이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 본 논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학계
는 조선시대 말기의 화폐제도 변천과 그 제도의 경제·사
회적 영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정작 화폐 자체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관련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료 중 일부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료를 근거로 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된 여
러 증거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류가 바로 잡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김희호, 2022, 「광무 화폐」,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대광사, 2018, 「대한민국화폐가격도록」, 서울.
 도면화, 1989, 「갑오개혁 이후 화폐제도의 문란과 그 영향
 (1894~1905)」, 한국사론, 21, 371-458.
 박준채, 1980, 「한말 전환국의 사적 고찰」, 경제사학, 4,
 20-37.
 박평식, 2019, 「한국 근현대 화폐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개항기~광복 이후(한국은행 용역과제 최종보고서)」,
 서울: 한국은행.
 오두환, 1991, 「한국근대화폐사」, 서울: 한국연구원.
 원유한, 1968, 「『전환국』고」, 역사학보, 37, 59-110.
 원유한, 2006, 「한국화폐사: 고대에서 대한제국시대까지

(한국은행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한국은행 발권국.
 원유한, 2008, 「조선후기 화폐사」, 서울: 혜안.
 유자후, 1940, 「조선화폐고」, 경성: 학예사.
 조영준, 2014, 「설립 초기 전환국의 운영 실태(1883~1892)」,
 정신문화연구 37(1), 291-323.
 한국은행, 2006, 「한국의 화폐」.
 한국은행, 2015, 「우리나라의 화폐」.
 한국조폐공사, 1993, 「한국화폐전사」.
 오성K&C, 2018, 「한국화폐가격도록」, 서울.
 典圖局, 鑄造總報.
 甲賀宣政, 1914, 「近世朝鮮貨幣及典圖局の沿革」, 朝鮮總督
 府月報 4(12).
 澁澤榮一, 1909, 韓國貨幣整理報告書, 第一銀行.
 統監府, 1910, 統監府 日英博覽會 寫真帖.
 기호일보, 2008년 2월 4일자, 「인천의 근대 시절(4) -근대
 화폐를 주조하던 인천전환국-」
 승정원일기, <http://www.sjw.history.go.kr>
 인천광역시, <https://www.incheon.go.kr>
 조선왕조실록, <http://www.sillok.history.go.kr>
 풍산화동양행, <http://www.hwadong.com>
 Heritage Auctions, <http://www.ha.com>
 NGC(Numismatic Guaranty Company), [https://www.
 ngccoin.com](https://www.ngccoin.com)
 PCGS(Professional Coin Grading Service), [https://www.
 pcgsc.com](https://www.pcgsc.com)

교신 : 이의한,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
길 1,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euihan@
kangwon.ac.kr](mailto:euihan@kangwon.ac.kr))

Correspondence: Euihan Lee, 24341, 1 Kangwondaehak-
gil, Chuncheon,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mail: euihan@kangwon.ac.kr)

투고접수일: 2025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25년 5월 22일

게재확정일: 2025년 5월 27일